

“시민 안전 최우선” 광주시, 폭염 종합대책 강화

살수차 하루 평균 20대 투입 2배 확대

파라솔형 그늘막도 131개소 추가 설치

건설 현장 등 취약 분야 근로자 보호

광주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라 긴급 대응에 나섰다.

강기정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폭염 대응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폭염 대응 대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16개 관계 부서와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해 폭염 대응 강화 대책을 공유하고 자치구의 폭염 대응 추

진 상황을 점검했다.

폭염 대응 점검 회의에서는 관계부서와 자치구에 온열질환 예방 체계 강화, 폭염 취약계층인 고령농업인·독거노인·공사장 야외근로자 등에 대한 꼼꼼한 대책 추진과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주문했다.

광주시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5월 수립한 ‘폭염 종합대책’과 함께 ‘폭염 대응체계 추가 강화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폭염 대응 체계 추가 강화 방안은 생활환경 개선, 폭염 민감계층 집중 보호, 대시민 홍보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를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 투입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요 간선도로 20개 구간 노선 226km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약 20대의 살수차량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계림동, 치평동, 봉선동 등 폭염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요 보행로와 횡단보도 등에 대형 파라솔형 그늘막 131개소를 설치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 광주지역에서 운영되는 그늘막은 기존 679개소를 포함해 총 810개소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금남로 일원 환승거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설치된 쿨링 포그, 클린로드도 상시 가동한다.

폭염 취약 분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 건설업체 약 2천500곳에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충분한 물 마시기’ 등 폭염 행동

수칙을 담은 시장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 민감대상자인 독거노인, 쪽방주민,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등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쿨 타올, 쿨 마스크, 부채 등 보냉물품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은 사전 대비와 올바른 행동 요령 숙지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광산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양심 생수 냉동고’를 전역으로 확대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폭염 행동수칙이 부착된 얼음 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폭염 행동 수칙을 안내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터미널, 공원 등에

서는 시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며 폭염 행동수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전광판, 마을방송,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과 폭염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강화 방안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2천만원이 교부되는 대로 지속 투입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현장의 어려움, 고충을 두루 청취해 폭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시민과 야외근로자,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정소의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된 尹, 내란재판 불출석…특검-尹측 법정 충돌

사유서 제출후 첫 불참…변호인들만 출석

尹측 “구속 8시간도 안돼 소환 적법 의문”

특검 “재발방지 촉구·추후구인 검토요청”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다만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검법사팀은 재판 출석 여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지쿠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걸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진행이 된다. 이번처럼 나오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기일 외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증인신문은 이뤄지며 증언을 증인신문 조서로 남긴다. /연합뉴스

지역 정치권 “尹 구속, 사필귀정”

姜시장 “빠르게 제자리 찾는 풍경”

金子사 “비로소 정의 다시 실현돼”

광주·전남 정치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한목소리로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박정호 대령 무죄 확정, 윤석열은 구속 수감.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적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비로소 정의가 다시 실현됐다.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부하들은 감옥에 있는데 우두머리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에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란의 전모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광주시의회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훼손됐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특검의 신속한 대응과 재판부의 결단으로 정의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는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120일 넘도록 불법적인 자유를 누렸던 내란 수괴의 구속은 당연한 상식이자 법 집행”이라며 “김건희 등 야적사회 곳곳에 암처럼 퍼져 있는 내란세력과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낚날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철·변은진 기자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타 결국 탈락

광주 상무역과 나주역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10일 광주시·나주시에 따르면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총사업비 1조5천102억원을 투입, 광주 상무역부터 나주역까지 약 26.4km 구간을 잇는 복선전철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전국 유일 공동혁신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지역균형발전, 인구 분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날 기재부 제7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탈락이 결정됐다.

예타 미통과의 요인으로는 ▲광주 효천역 경

유안에 대한 이견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 문제 등 광역 차원의 조율 과제가 꼽힌다.

광주시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타 미통과가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평가하고 효천역 경유 노선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트램(노면전차) 등 복합 대안 교통수단까지 포함한 통합 교통체계 구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 공감대와 정책 연속성을 바탕으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반드시 현실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 1) 임동5거리 8층 135평 은행감정가 6억1,600
급매가4억1,000(3,000세대아파트 대로변)
- 2) 용자금(14억)만 안고 그냥 이전해가세요
산수동5거리 4층건물 대지150평 연건평380평
주차15대
- 3) 대인광장로타리 상업지 178평을 급매합니다
평당1200만원(조정됨)입니다
- 4) 운암자이(구주공)등5,000여세대
대로변코너 대지202평 5층622평
승강기1,주차11 급매43억
- 5) 드라이브스루 마케팅용빌딩
남부권 관문, 아파트1만세대 생활권 6차선대로변
대지606평 지하1층 지상3층
승강기1, 에스컬레이터 각층, 주차92대 가능
급매98억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
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혼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